■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31-171.
http://doi.org/10.17948/kcs.2021..92.131

【특집: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부류의 연구*

이효윤(李孝允)** · 최혜빈(崔惠斌)*** · 여채려(余彩麗)****

목 차

1. 서론
2.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체계의 특징
3.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항목의 특징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어제청문감』을 기반으로 하는『어제증정청문감』, 그리고『한청문감』에서 드러나는 질병 관련 어휘의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의학 관련 어휘들은 역사적으로 동양의 각국에서 전파 및 수용되며 각 나라 및 시기에 따라 체계화 및 재구성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동양에서 질병과 관련된 어휘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이 어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체계화하였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청문감류〉가 자국어 뜻풀이 사전인 동시에 어휘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8089).
** 제1저자. 연세대 학부대학 강사.
*** 교신저자. 고려대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
**** 공동연구자.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휘집이라는 점에서, 〈청문감류〉에서 질병과 관련된 어휘들을 어떻게 분류 및 체계화하였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어휘 항목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요소를 표제어와 뜻풀이에 활용된 어휘를 기반으로 확인하였다. 『어제청문감』과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어휘를 체계화하는 기준으로서 부류명을 확인하고, 부류 안에서 질병과 관련된 어휘 전체를 포괄하는 어휘를 제시한 뒤, 나머지 어휘들을 부류에 따라서 질병, 증상, 관련 어휘의 순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한편, 신체 부위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는 점, 그리고 질병의 진행 순서에 따른 배열을 보이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표제어에 각 질병의 표면적인 특성이 주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뜻풀이에 있어서도 전문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을 통해 질병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어제청문감』, 『어제증정청문감』, 『한청문감』, 어휘 분류, 어휘 체계, 일상어, 질병 어휘.

1. 서론

본 연구는 〈청문감류〉[1] 만주어 사전을 대상으로, 당시의 화자들이 질병과 관련되는 어휘를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하여 인식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의 자료들 특히, 만주어 어휘를 포함하는 유해류와 당대의 의서에서 드러나는 질병 관련 어휘의 인식과 비교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이다[2].

의학 관련 어휘들은 역사적으로 동양의 각국에서 전파 및 수용되며, 각 나라 및 시기에 따라 그 실정에 맞추어 체계화되어 재구성되어 왔다. 일례로 『

1) 성우철・오민석・김유범, 「清文鑑類 만주어 사전의 성립과 전파, 그리고 동아시아적 변용」, 『인문학연구』 45,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20, 8-9면에 의하면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이란 『御製清文鑑』과 그것을 증보한 『御製增訂清文鑑』, 그리고 이 두 사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모든 만주어 사전류를 통칭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 중 청나라에서 간행된 『어제청문감』과 『어제증정청문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한청문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자료에 한정하여 〈청문감류〉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 외에 『어제청문감』의 경우 『청문』, 『어제증정청문감』은 『증정』, 그리고 『한청문감』은 『한청』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2) 연규동, 「근대국어의 낱말밭—유해류 역학서의 부류 배열 순서를 중심으로」, 『언어학』 28, 한국언어학회, 2001에서는 유해류 역학서의 분류 어휘집으로서의 특징에 주목하였는데, 유해류 역학서에 제시된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그 편찬자들이 의미에 의한 어휘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황제내경』[3]과 『의학입문』 등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동의보감』이나 『구급방』 등 여러 의서의 기반이 된다. 즉, 동양에서 각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명칭 및 그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공통된 요소를 지니며 전수되어 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학 용어의 통용 및 전용은 한의학계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의학 서적에 대한 번역이 진행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과 관련된 어휘들은 생활에 밀착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사실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질병 관련 어휘들이 만주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제청문감』[4]은 크게 'šošohon(部)'와 'hacin(類)'으로 구분되며, 다시 'meyen(則)'으로 하위 분류된다. 이에 대해 김양진(2014)[5]에서는 『어제청문감』의 거시구조가 'šošohon(部)-hacin(類)-meyen(則)' 3단 구조로 구성되며, 'meyen(則)'은 'hacin(類)'에서 성격이 비슷한 것을 'uju(첫째), jai(둘째), ilaci(셋째), duici(넷째)'의 형식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유사하게, 최계영(2016)[6]에서도 칙(則) 내에서 어휘 배열 순서를 좌우하는 원칙이 있다고 하였는데 의미상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의 순서로, 형태상으로는 기본형에서 파생형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기반으로 분류어휘집으로서 〈청문감류〉에서 확인되는 각 어휘의 배

3) 朴薰平. 「조선시대 [황제내경] 의 간행과 강서 활용 연구」. 『서지학연구』 82, 한국서지학회, 2020, 122면에 의하면, 『황제내경』은 『내경』이라 간칭되며 동아시아 전통의학 이론의 準則이되는 의서로, 전설상의 인물인 黃帝가 그의 신하인 岐伯 등과 의학에 대하여 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중국 西漢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素問』과 『靈樞』로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에도 『내경』은 한의학 이론의 기초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4) 『어제청문감』은 康熙 47년(1708)에 편찬된 만주어 사전으로, 이전에 편찬된 대역어 사전과 달리 약 1만 2천여 만주어 어휘를 만주어를 사용하여 뜻풀이한 최초의 자국어 뜻풀이 사전이며 동시에 백과사전식 분류사전이다. 또한 규범으로 삼은 어형과 어구만을 수록하고 있는 표준 만주어 사전이기도 하다. 김양진・신상현・오민석, 「『御製清文鑑』「天部」 校勘 및 譯註 硏究」, 『인문학연구』 25,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14, 122-125면.

5) 김양진, 「만주어사전 『어제청문감』(1708)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014, 47면.

6) 최계영, 「『漢清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35면.

열 순서 및 유형 분류를 통해 질병과 관련된 어휘를 어떻게 체계화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청문감류〉에서는 'šošohon(部)'와 'hacin(類)'에 대해서는 명칭이 제시되었으나, 'hacin(類)'을 하위 분류한 'meyen(則)'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류명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각 'meyen(則)'이 구분된 근거를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각 'meyen(則)'이 어떠한 구성을 지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각 'meyen(則)'에서 어휘들이 보이는 배열 순서를 확인하고 여기에서의 특징은 〈청문감류〉를 통해 당대 만주인들이 질병과 관련된 표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어를 사용하여 만주어를 뜻풀이한 최초의 자국어 뜻풀이 사전인 〈청문감류〉 중 『증정』의 'niylma šošohon(人部) 7'을 중심에 두고 질병과 관련된 어휘의 체계를 확인하되, 부분적으로 『청문』과 『한청』을 이용할 것이다. 『청문』은 『증정』으로, 그리고 조선의 『한청』 편찬으로 이어진다. 『증정』에서는 한어 표제어가, 『한청』에서는 조선어 대역어가 부가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 두 자료의 만주문에 드러나는 뜻풀이 구조와 내용은 대부분 『청문』의 뜻풀이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의어에 대한 표제어 분할 여부와 대부분의 뜻풀이에서 확인되는 몇몇 유형화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청문』의 'niylma šošohon'은 8개로 구분되는 한편, 『증정』의 'niylma šošohon(人部)'은 9개의 類로 구분된다. 이 중 질병, 증상에 대한 어휘가 『청문』에서는 'niyalma 6'과 'niyalma 7'에 걸쳐 나뉘어 있다. 그에 비해 『증정』의 'niylma šošohon(人部) 7'은 折磨 咒罵, 叛逆, 逃避, 竊奪, 疾病(1, 2), 症通(1, 2, 3), 瘡濃(1, 2), 腫脹, 傷痕, 殘缺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증정』의 疾病類(1, 2)부터 殘缺類까지, 모두 질병이나 의학적 증상과 관련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그 체계 및 어휘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당대의 분류어휘집인 『동문휘집』(1661), 『만한유서』(1700)[7],

7) 『滿漢類書』(32권 8책, 1700년), 『滿漢類書』는 『御製清文鑑』(1708)이 나오기 이전인 康熙39年(1700)에 간행된 초기 만주어 사전으로 『御製清文鑑』에서 처음으로 만주어 정서법의 규범이 제시

『동문유해』(1748), 『방언유석』(1778)[8] 에서의 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청문감류〉에서의 질병 관련 어휘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전문 의학 서적과 달리 〈청문감류〉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언어의 표준화를 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서와는 그 분류 및 기술 방식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청문감류〉 체계 안에서 질병 관련 어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청문감류〉 사전에서의 질병 관련 어휘 분류가 다른 유해류에서의 질병 어휘들과 체계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필 것이다.

개별 표제어 및 그 특징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한어 대역어와 만주어 표제어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여 유형화할 것이다. 주요 논의 대상으로는 만주어 표제어와 한어 대역어, 그리고 근대국어 대역어 사이에 표제어의 의미 및 지시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러한 어휘들에 대해서 각 표제어와 그 뜻풀이가 어떠한 형태 및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는 한어 및 근대 국어 대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언어 간 비교에는 〈청문감류〉에서 확인되는 각 어휘의 동음어 및 어근과의 관계를 통해 만주어에서 각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어휘에 반영하였는지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증정』의 만주어 표제어와 한어 표제어의 관계를 통해서는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어의 어형과 만주어의 어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한청』의 근대국어 대역어를 비교하여 각 어휘에 대한 한국어에서의 관련성도

되기 이전의 만주어 표기를 반영하고 있다. 『滿漢類書』는 滿漢 類別 사전으로 卷頭에 滿漢의 序가 있으며 9,600개 정도의 항목이 滿漢 類別로 32類가 배열되어 있는데 形容語類(卷29), 天然類(卷30), 相連語類(卷31)는 부분적으로 滿洲字母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만주어 및 만주 문학자료 총서 구축〉, 토대연구 DB 발췌.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

8) 『방언유석』은 조선 후기에 홍명복(洪命福) 등이 한(漢)・한(韓)・청(淸)・몽(蒙)・왜어(倭語)의 5개 언어로 편찬한 대역어휘집(對譯語彙集)이다. 『방언집석』 속에는 방언유석(方言類釋)・방언집석(方言輯釋)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쓰여있는데, 각 권의 권수제(卷首題)나 서명(序名)에서 '방언유석'으로 되어있던 것을 후에 '방언집석'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서명응의 주관 아래 홍명복을 비롯하여 여러 역관들이 함께 편집한 것으로, 홍명복이 『한청문감』의 편찬을 맡았을 때, 『방언유석』이 편찬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을 수 있어 『한청문감』과의 관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방언유석』, 홍문각 영인본, 1985 참조).

살피고자 한다.

2.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체계의 특징

본 장에서는 〈청문감류〉에 질병과 관련된 어휘들이 포함된 부분이 체계화되는 기준을 살피고자 한다. 〈청문감류〉에서는 어휘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부류의 명칭을 명시하는 점에서, 질병 관련된 어휘들이 포함된 부류의 명칭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체계적인 특징을 살필 수 있고, 그 외에 부류명이 별도로 드러나지 않는 則 안에서 각 어휘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 및 배열되는가 하는 점을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청문감류〉 외에, 당대에 형성된 어휘집인 『동문휘집』, 『만한유서』와 『동문유해』, 『방언유석』의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청문감류〉의 질병류 어휘가 보이는 체계적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1) 부류명에 드러나는 질병 어휘의 체계

〈청문감류〉에서 질병과 관련된 어휘는 『청문』의 ‘niyalma 6, 7’, 『증정』의 ‘人部 7’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청』에서는 『증정』에서와 같은 분류를 보인다. 〈청문감류〉에서 질병 관련 어휘의 유별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분류 1

『청문』 部	『청문』 類, 則	『증정』 (人部 7)	『한청』 (人部3)	칙별 내용
niyalma 6	nimeku jadaha 1	nimeku jadaha i hacin (疾病類 第1)	疾病類 1	nimeku
	nimeku jadaha 2	nimeku jadaha i hacin (疾病類 第2)	疾病類 2	jadaha
	nimere nidure 1	nimere nidure i hacin (疼痛類 第1)	疼痛類 1	nimembi
	nimere nidure 1	nimere nidure i hacin (疼痛類 第2)	疼痛類 2	nimembi
	nimere nidure 2	nimere nidure i hacin (疼痛類 第3)	疼痛類 3	nidumbi

niyalma 7	yoo šugi 1	yoo šugi i hacin (瘡膿類 第1)	瘡膿類 1	yoo
	yoo šugi 2	yoo šugi i hacin (瘡膿類 第2)	瘡膿類 2	šugi
	aibire hukšere	aibire hukšere hacin (腫脹類)	腫脹類	aibire hukšere
	feye furdan	feye furdan i hacin (傷痕類)	傷痕類	feye furdan
	eden dadun	eden dadun i hacin (殘疾類)	殘疾類	eden dadun

『청문』에서는 'niyalma 6, 7'로 구분하여 제시된 것에 비해, 『증정』에서는 人部 7에 모두 포함된 점이 체계상 다르다. 그리고 『청문』 'nimere nidure'를 『청문』에서는 'nimere'와 'nidure'의 두 칙으로 구분한 것에 비해, 『증정』에서는 'nimere'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 칙으로 세분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증정』에서 'nimere'를 두 칙으로 양분한 기준은 각 부분에 포함된 어휘의 특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청문』의 'nimere 1'에 대응되는 『증정』 疼痛 1의 어휘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체계를 보인다.

〈표 2〉『증정』 疼痛 1의 어휘

部	類,則	어휘의 목록[9]	분류 기준
人7	疼痛 1	nimembi(疼痛, 알프다), šara nimehe(疼極, -) nimetembi(一齊患病, -)	부류 포괄
人7	疼痛 1	uju nimembi(頭疼, 마리 알타), uju liyeliyembi(頭暈, 마리 어즐ᄒᆞ다), uju liyeliyešembi(頭發暈, -), hūi seme(眩暈, 어즐ᄒᆞ다), hūi hai seme(眩暈, -)	머리
人7	疼痛 1	yasa ilhanambi(眼生花, 눈에 아즈랑이 나다), yasa nimembi(眼疼, 눈 알타), yasa sohiha(眼迷了, 눈에 몬ᄌᆡ 드다), nukajambi(眼扎着疼, 눈 쓰시ᄃᆞ시 알타), muharšambi(眼磨着疼, 눈 부븨ᄃᆞ시 알타)	눈
人7	疼痛 1	niyaman jaka nimembi(心口疼, 가ᄉᆞᆷ 알타), idaršambi(心口微疼, -), cejen telebumbi(胸膈脹疼, -), niyaman tuksimbi(心跳, 가ᄉᆞᆷ 도곤도곤ᄒᆞ다), sir siyar(心口跳動, -), tur tar seme(心急跳, -)	가슴
人7	疼痛 1	tokobumbi(扎着疼, -), hefeli nimembi(腹痛, ᄇᆡ 알타), kūr kar(腹鳴, ᄇᆡ 우다)	배

人7	疼痛 1	dara goloho(腰閃了, 허리 ᄀᆞ뭇다), niniyarilaha(腰扭了, 허리 싀근싀근ᄒᆞ다)	허리
人7	疼痛 1	idarambi(岔氣疼, 긔운 벗쳐 알타), buktakabi(落枕, 직항증), tuyabuha(手足村了, 손 발 졉질니다), singgiyambi(酸疼, 싀근싀근ᄒᆞ다), sorocombi(疼的着不得手, 알하 손 다히지 못 ᄒᆞ다)	관절, 근육

『증정』의 人部 7, 疼痛 1의 어휘는 통증의 부위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疼痛 1의 체계는 해당 칙의 어휘들을 포괄하는 'nimembi(아프다)' 및 'nimembi'로부터 파생된 어휘들을 먼저 제시한 뒤에, 인체의 상부인 '머리—눈—가슴—배—허리—손발'의 순서로 각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명칭들을 체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10]

이와는 달리 疼痛 2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을 포괄하는 어휘 없이 어휘들을 통해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보자.

〈표 3〉『증정』 疼痛 2의 어휘

部	類,則	어휘의 목록	분류 기준
人7	疼痛 2	gosimbi(疼, 쁠알히다), car seme(燙的疼, 데여 쁠알히다), car cir(破處疼, 버서져 쁠알히다), fergime nimembi(螫的疼, 버레예 쐬여 알타)	살갗
人7	疼痛 2	caksimbi(骨節疼, 골절 알타), fintambi(刺骨疼, 뼈 쑤셔 아프다), niombi(徹骨疼, 뼈ᄉᆡ지 ᄉᆞ못 알타), luksimbi(跳膿疼, 골마 쑤시ᄃᆞ시 알타)	뼈
人7	疼痛 2	wenjembi(發燒, -) haksambi(心裡發燒, 속 달호이다), gilacambi (躁熱, 번열ᄒᆞ다), fathašambi(煩躁, 煩躁ᄒᆞ다), fulgiyan hafuka(出疹子, 되야기 나다)	발열
人7	疼痛 2	šurgecembi(打顫, 써다), durgecembi(身子抖顫, -), gūwaššambi(肉跳, 솔 쎌니다), gūwacihiyašambi(肉跳, 솔 쎌니다), terten tartan(顫搖, 믹이 써다), fer far seme(軟弱無力, 병약ᄒᆞ여 긔운 업다), edun	떨림

9) 〈청문감류〉의 어휘 목록에 제시된 각 어휘의 정보는 "『증정』 표제어(『증정』 한어 대역어, 『한청』 대역어)"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10) 차웅석, 「중국의 『醫學入門』이 한국의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13-1, 한국의사학회, 2000, 122면에서는 『동의보감』의 목차도 인체의 외형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의보감』의 외형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다.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頭項/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筋, 骨/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dekdehe(冒風, 감긔 겨시다), sukdun cirgabumbi(氣壅堵, -), gocimbumbi(手足抽搐, 손발 켜이다), fiyagahabi(成腮子, -)	
人7	疼痛 2	fumbi(發麻, 저리다), fungkebi(麻了, -), sir seme(微麻, 져기 저리다), menerekebi(木了, 어리다), celembi(倦軟, 뇌곤ᄒᆞ다)	마비

疼痛 2에 포함된 어휘는 1칙과는 달리 질병, 증상을 신체를 부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살갗—뼈—발열—떨림—마비" 등과 같이 신체 전반에 걸치는 증상을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각 어휘 부류 안에서는 다시 상처, 질병의 원인에 따른 어휘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청문감류〉에서 『청문』의 'nimere nidure 2'와 이에 대응하는 『증정』의 疼痛 3에서는 'nidumbi'가 해당 칙을 포괄하는 어휘로서 제시되고, 앓는 과정에 대한 여러 어휘들이 체계적으로 드러난다. 疼痛 3을 통해 앞에서 확인한 것과 또 다른 분류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1) nidumbi, 哼哼, nimere de hamirakū emdubei ang seme jilgan tucire be, nidumbi sembi.〈증정 16:26b〉
(앓는 소리 하다 : 아플 적에 참지 못하여서 다만 ang 하고 소리 내는 것을 앓는 소리 하다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청문감에서 질병과 관련된 어휘를 포함하는 부분은 人部의 疾病類, 疼痛類, 瘡膿類, 腫脹類, 傷痕類, 그리고 殘缺類로 분류되어 있다. 〈청문감류〉의 책에 따라서 부, 류, 칙의 구분이 조금씩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부류의 배열 순서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분류는 〈청문감류〉자료에 선, 후행하는 당대의 유해류 자료들의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특징이 확인된다. 〈청문감류〉와 가까운 시대에 작성된 유해류로서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동문휘집』과 『만한유서』, 그리고 〈청문감류〉 이후에 작성된 유해류로서 조선에서 만들어진 『동문유해』와 『방언유석』의 체계를 함께 참조할 수 있다.

먼저, 비교해볼 수 있는 것으로 청나라의 유해류인 『동문휘집』과 『만한유서』가 있다. 이 두 책은 『어제청문감』보다 앞서 작성된 것으로, 이 책들에서

는 질병과 관련된 어휘가 질액류(疾厄類)에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청문감류〉처럼 질병 관련 어휘들을 하위 분류 및 항목화하여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청문감류〉와 다르다. 또한 질액류에 포함되는 어휘들을 살폈을 때, 여기에서는 질병의 명칭이나 증상 등에 대한 어휘 외에, 후반부에 처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어휘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문감류〉와는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해 조선에서 제작된 『동문유해』에서는 疾病類, 醫藥類가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방언유석』에서는 疾病類, 殘疾類, 醫藥類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문감류〉를 제외한 유해류 자료에서는 모두 처방이나 의약과 관련된 어휘들이 부류의 내부, 외부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청문감류〉에서 질병 관련 어휘가 疾病類, 疼痛類, 瘡膿類, 腫脹類, 傷痕類, 그리고 殘缺類로 구분되는데 이 부류들이 『청문감』에서는 疾病類, 疼痛類와 瘡膿類, 腫脹類, 傷痕類, 殘缺類로 양분되어 있다. 이 중 창농류(瘡膿類)와 잔결류(殘缺類) 어휘들의 경우는 『동문휘집』, 『만한유서』 및 『동문유해』와 『방언유석』에서도 질병 관련 어휘들의 후반부, 의약 관련 어휘들의 앞부분에 배치된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이어지는 하위 분류 및 어휘 배열 순서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2) 부류 내에서의 어휘 구분 및 배열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문감류〉에서 질병과 관련되는 어휘는 疾病類, 疼痛類, 瘡膿類, 腫脹類, 傷痕類, 그리고 殘缺類로 구분된다.

(1) 상위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의 구분

〈청문감류〉의 체계적인 특성에 대해, 최계영(2016)[11]에서는 『증정』과 『한청』의 어휘는, 칙 내의 표제어들은 단어의 의미 속성과 품사 범주에 의해 순

11) 최계영,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45면.

서가 결정되며, 의미상으로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의 순서로, 형태상으로는 기본형에서 파생형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는 칙 안에서도 그 부류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어를 먼저 제시한 후에 그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어와 세부적인 어휘들을 배열하고 있다.

〈표 4〉 〈청문감류〉의 疾病類 어휘 - 일부

部	類,則	어휘의 목록	분류 기준
人7	疾病1	nimeku(病, 病), nimekungge(有病的,병 잇ᄂᆞᆫ 이), nimembi(病了, 병 알타), nimetembi(一齊患病 , nimekulehebi(成了病, 병 되다), hūsibuhabi(總不離病, 병에 ᄲᅥ이다), darubuhabi(肯病, 병쟉이)	부류 포괄
人7	疾病1	dabaha nimeku(勞病, 로심병), narhūn nimeku(疝氣, 산증), fika nimeku(痞疾, 痞疾)	순환
人7	疾病1	yamtun(吼病, 咳喘), yamtungga(吼病人, -), hiyahū(吼喘, -)	천식
人7	疾病1	geri(瘟疫, 염병)	온역
人7	疾病1	harkasi(熱症, 傷寒), indehen(瘧疾, 瘧疾), ilhi(痢疾, 痢疾), ilhinembi(痢疾, 痢疾)	온역 종류
人7	疾病1	hefeliyenembi(瀉肚, 셜샤ᄒᆞ다), sosombi(水瀉, 水泄ᄒᆞ다), fingkabumbi(下墜, 후즁ᄒᆞ다)	온역 증상
人7	疾病1	fudasihūlahabi(瘋了, 미치다), dailahabi(中了邪, 샤 들리다), fancakū nimeku(羊叫瘋, 간질), cilikū(噎膈, 목 멘 증), menen(癱瘓, 슈죡 느러진 병)	정신 상태

청나라 시기의 어휘집인 『동문휘집』과 『만한유서』의 경우에는 〈청문감류〉와는 달리 상위어를 중심으로 질병 관련 어휘들이 체계화되지는 않는다. 한편, 『동문휘집』에서는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병증인 'fudasihūlaha(瘋狂)', 'ibgan dailaha(驚瘋)', 'edulehe(驚起)'를 먼저 구분하여 제시한 점이 〈청문감류〉와 다르다.

〈표 5〉 『동문휘집』 질액류의 어휘 - 일부

구분 기준	하위 구분	어휘의 목록[12]
병의 종류	의식	fudasihūlaha(瘋狂), ibgan dailaha(驚瘋), edulehe(驚起)

	유무	
	병의 종류	dalhūn cifenggu dekdehe(痰火), harkasi nimeku(傷寒), geri nimeku(瘟症), gingkaha nimeku(鬱症), indehen nimeku(虐疾), narhūn nimeku(細病), joboho nimeku(勞症), yadalinggū nimeku(弱症), absari nimeku(瘤疾), nilhin nimeku(痢疾), dalganaha nimeku(痞塊), halhūn de joboho(傷暑), šahūraka, edun goiha(感冒)
동반되는 증상들	설사	hefeliyenembi, hefeliye aššambi(泄瀉), oksime sosome nimembi(霍亂)
	발열	wenjembi, gilacambi(發燒), giranggi hūktambi(骨蒸)
부위에 따른 구분	배	dolo cehun nimembi(飽悶), dolo saksalabuhabi(停滯), telebume nimembi(痞滿), hefelli madame, nimembi(皷脹)
	입	cilime nimembi(梗噎), fucihiyambi(咳嗽), kengsimbi(乾嗽), hejeme fodombi(喘急)

『만한유서』에서도 의식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상인 ‘fudasihūn nimeku(瘋病)’, ‘fudasihūlaha(瘋了)’와 같은 어휘를 부류의 첫머리에 우선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점이 『동문휘집』과는 공통적이고 〈청문감류〉와는 다르다.

〈표 6〉『만한유서』 질액류의 어휘 -일부

구분 기준	하위 구분	어휘의 목록
	의식 없음	fudasihūn nimeku(瘋病), fudasihūlaha(瘋了), ibagan dailaha(瘋了), edulehe(驚風)
nimeku	감기	harkasi (傷寒), gari nimeku(瘟症), edun goiha(感胃), šahuraka(感胃)
	담증	tan dekdehe(痰症), dalaha cifanggu dekdehe(痰症), fancahū nimeku (痰絶), fancakū nimeku(氣絶)
	더위	halhūn den dabanaha(中暑), darbahūn den baha(中濕)
	병의 종류	gingkaha nimeku (鬱症), aidaha nimeku(虐疾), soroko nimeku (黃疸), narhūn nimeku(陰症), jobome dabanaha nimeku(癆病), sunggari nimeku(癆病)
	배설	hefeliyenembi(泄瀉), hefeliyen aššambi(泄瀉), oksara sosoro nimeku(霍亂), holopo nimeku(霍亂)
증상	붓다	šahun abiha nimeku(水腫), absari nimeku(癥疾)
	열나다	wenjimbi(發熱), gilacambi(發熱), giranggi hūkdumbi(骨蒸)

12) 『동문휘집』과 『만한유서』에서는 만주어 표제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어 표제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휘의 목록에서는 “만주어 표제어(한어)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소화기관	delebume nimembi(痞滿), dolo cehun nimembi(痞塊), hefeliyen madame nimembi(鼓腸), cileme nimembi(梗噎)
	입	fucihiyambi(咳嗽), kabimbi(乾咳), hejembi(喘), fodombi(喘急), jurume oksimbi(嘔吐), jeku fudambi(翻胃), silenggilembi(流涎), johombi(噯氣), kekerembi(打膈氣), silgimbi(嘈雜), jo banjimbi (醋心), ohoršombi(惡心), eyeršembi(惡心), fuyakiyambi(惡心), senggi oksimbi (吐血), senggi kaksimbi (嗽血)
	순환기	senggi wasimbi(便血), senggi sitembi(溺血), senggi bisaka(血崩), gaitai beyembi(乍寒), gaitai wenjembi(乍熱)
	심리	faihacambi(煩燥), fathašambi(煩燥)
	호흡기	hiyahū(喉病), yamtun(癆喘), yamtungga(癆喘), yalmaha tuheke(喉痺)

조선시대에 간행된 유해류인 『동문유해』와 『방언유석』의 경우에는 〈청문감류〉와 동일하게 질병의 부류를 포괄하는 어휘들을 먼저 제시한 후에 나머지 어휘들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표 7〉『동문유해』 질병류의 어휘 -일부

구분 기준	어휘의 목록	
nimeku	nimeku(病, 病), nimekulehebi(病了, 병드다), nimembi(害病, 병알타)	
병의 증상	nidumbi(呻吟, 呻吟ᄒᆞ다), beye cihakū(身子不快, 몸 셩치 못ᄒᆞ다), hele burubumbi(喉聾, 失音ᄒᆞ다)	
병명	감기	wanggiyanahabi(害鼻淵, 코불ᄒᆞ다), šahūrakabi(感冒, 感冒ᄒᆞ다), harkasi(傷寒, 傷寒)
	설사	holongso nimeku(癨亂, 癨亂), hefeliyenembi(泄瀉, 泄瀉ᄒᆞ다), sosombi(泄瀉, 泄瀉ᄒᆞ다)
	이질	nilhin nimeku(痢疾, 痢疾), nilhi hefeliyenembi(下痢, 니질ᄒᆞ다)
	학질	indehen nimeku(牛日病, 학질)
	중풍	edulehebi(中風, 中風ᄒᆞ다 又 驚風ᄒᆞ다)
	열병	harhūn de dabanaha(害暑, 더위 드다), calimbi(中暑, 더위 마키다), tan dekdehe(痰症, 痰症), soroko nimeku(黃疸, 黃疸), duhen aibihabi(疝症, 산증), geri nimeku(瘟疫, 염병)
증상	ibagan dailahabi(瘋了, 미치다), fudasihūlahabi(瘋了, 미치다) cehun(飽悶, 飽悶ᄒᆞ다), kušun(煩懣, 煩懣ᄒᆞ다 又 ᄀᆞᆨᄀᆞᆸᄒᆞ다) niyaman jaka nimembi(心疼, 가슴 알타), singgiyambi(酸疼, 싀근싀근ᄒᆞ다), gosimbi(刺疼, 쓸알히다)	

의식이 흐릿함	farakabi(發昏, 혼절ᄒᆞ다), wenjembi(發熱, 번열ᄒᆞ다), murhu farhūn(昏沉, 昏沉ᄒᆞ다), uju liyeliyembi(頭暈, 마리 어즐ᄒᆞ다)
떨림	šurgembi(打戰, 通稱 ᄯᅥ다), šurgecembi(打戰, 通稱 ᄯᅥ다), gūwaššambi(肉戰, 술 ᄲᆞᆯ리다)

『방언유석』 또한 부류를 포괄하는 어휘인 ‘nimeku’, ‘nimembi’를 시작으로 관련된 어휘들은 제시한다. 그 내용으로는 병의 증상, 병명, 부위별 증상에 대한 표제어가 있다.

〈표 8〉『방언유석』 질병류의 어휘-일부

구분 기준		어휘의 목록
nimeku		nimeku(病, 병), nimembi(病了, 병드다), nimekulembi(害病, 병알타) beye cihakū(身子不快, 몸 셩치 못ᄒᆞ다), nimeku ujelehe(病好子, 병 낫다), nimeku yebe oho(病好子, 병 낫다)
병의 증상		šahūrakabi(感冒, 감긔드다), uju nimembi(頭疼, 마리 알타), niyaman jaka nimembi(가슴 알타), hefeli nimembi(肚子疼, ᄇᆡ 알프다)
병명		edulehebi(中風, 즁풍), geri nimeku(瘟病, 염병), harkasi(傷寒, 샹한), fancakū nimeku(癇疾, 질알), indehen nimeku(瘧疾, 고곰)
부위별 증상	호흡기	hiyahū(癆喘, 쳔만), fucihiyan(咳嗽, 기춤), kengsin(乾嗽, ᄆᆞᄐᆞᆫ 기춤)
	입	eyeršen(嘔氣, 구긔), oksimbi(嘔吐, 구토)
	목	keku tuhembi(咽喉弔了, 목졋 지다), bilha sibushūn(噪子啞了, 목쉬다)
	귀	šan dutu(耳聾, 귀먹다)
	피부	gūwašišambi(肉戰, 살 ᄲᆞᆯ리다)
	머리	fudasihūlahabi(瘋了, 밋치다), liyeliyembi(發暈, 어즐ᄒᆞ다)

앞서 제시한 〈표 4〉-〈표 8〉을 통해 각 자료에서 질병 관련 어휘를 어떻게 체계화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청문감류〉의 〈표 4〉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는 상위어를 기준으로 관련되는 질병의 종류가 제시된 후에, 다시 해당 부류의 질병에 동반되는 증상과 관련되는 어휘들이 순차적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한청문감』에서 ‘온역’에 대응되는 ‘geri’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어휘들이 하위분류되었다. ‘geri’의 다음에는 온역, 전염병의

종류로서 상한, 이질, 학질을 제시한 뒤에, 여기에 동반되는 증상으로서 '설사하다,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휘는 각 증상과 관련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증상의 뒤에 관련되는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동문휘집』과 『만한유서』에서 공통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 병증을 가장 먼저 구분한 것에 비해 『청문』에서는 온역의 종류와 그 증상 이후에 의식이 없는 상태, 절제하지 못하는 증세를 언급한 경우 외에는 심리적인 태도, 의식의 유무와 관련한 어휘는 별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을 보았을 때 이는 온역과 관련된 증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동문유해』와 『방언유석』에서도 온역, 감기와 관련되는 증상으로서 전염병의 종류 뒤에 'ibagan dailahabi(瘋了, 미치다)', 'fudasihūlahabi(瘋了, 미치다)', 'fancakū nimeku(癇疾, 질알)' 등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체 부위에 따른 질병의 분류 및 배열

〈표 4〉에 의하면 〈청문감류〉에서 질병 관련 어휘들이 신체 부위에 따라 상—〉하, 앞—〉뒤의 순서로 체계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머리—가슴—배—등—다리—발—전신"의 순으로 체계화되는데, 이 점은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표 5〉, 〈표 6〉의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문휘집』과 『만한유서』의 경우에도 질병에 대한 표현들이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청문감류〉와 같은 순서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만한유서』의 경우에는 어휘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신체 부위와 순환기, 호흡기와 같은 신체 내부 기관의 역할에 의한 구분도 어휘 분류의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청문감류〉와 차이가 있다.

『동문유해』와 『방언유석』에서도 〈청문감류〉의 어휘 배열 순서와 유사하게 "포괄어—질병의 종류—수반되는 증상"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다. 하지만, 『동문유해』에서는 신체 부위에 따라 어휘들을 체계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방언유석』의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표현에서 일부 신체 부위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지만, 〈청문감류〉와 같은 순서를 보이지는 않는다.

(3) 질병, 증상의 진행 단계에 따른 배열

그 외에 〈청문감류〉의 瘡疾, 腫脹, 殘缺을 관통하는 배열 기준으로서 질병, 증상의 진행 단계에 따라 어휘들이 분류 및 배열되었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증정』의 '人部 7', 瘡膿類의 어휘를 통해 살펴보자.

〈표 9〉 人部 7, yoo šugi(瘡膿類)1, 2의 어휘들-부분: 瘡膿의 진행

類, 則	어휘의 목록	진행 과정	구분 기준
瘡膿 1 yoo	adurambi(瘡興了,죵긔 경ᄒᆞ다), niyasukabi(會膿了,곰다), fusejehe(瘡破了,죵긔 터지다)	종기의 발생 및 진행	
瘡膿 2 šugi	niyaki(膿,고롬), niyakinahabi(長膿,-), angga tucike(出頭,부리지다), šugi(淸膿,묽은 고롬), šula(黃水, 진믈)	고름 생기다	고름
瘡膿 2 šugi	pus seme(刺破聲,刺破聲), bur seme(膿冒出,고롬 소사나다), biyor seme(膿直流,-), fulhambi(流膿水, 고롬 흘으다)	고름 터지다	
瘡膿 2 šugi	johimbi(收口, 암그다), johihabi(收了口,-), fiyagahabi(瘡疤發殭, 암근 곳 ᄃᆞᆫᄃᆞᆫᄒᆞ다)	아물다	
瘡膿 2 šugi	huthe(瘡痂,더덩이), huthenehebi(瘡結痂,-), hede(瘡底盤,창질 자리), biyantaha(頭上瘡疤,-), fiyartun(瘡疤, 죵긔 허물), fiyartunahabi(成瘡疤,-)	아물 때의 증상 및 관련어휘	
瘡膿 2 šugi	sogiya(花兒,역질 과립), halašambi(痘前發賴,발반 젼에 알타)	발반	역질
瘡膿 2 šugi	karun sabumbi(見苗, 삭 뵈다), mama eršembi(出花,역질돗다), ajige ningge eršembi(出蓋痘疹, 홍진 나다)	역질 생기다	
瘡膿 2 šugi	bayan(花兒多,과립 만타), yadahūn(花兒窮, 과립 만치 아니타), gosihabi(花兒少, 과립 젹다), jilahabi(花兒稀, 과립 드무다), jira(花兒密, 과립 빅빅ᄒᆞ다)	역질 과립	
瘡膿 2 šugi	ayalambi(灌漿, 관롱ᄒᆞ다), marimbi(花兒回動, 도셔다)	역질이 진행되다	

瘡膿 2 šugi	šuhuri sihambi(落痂, 落痂ᄒᆞ다), handa(痘毒, 痘毒), surgi(痘後瘡毒, 痘後瘡毒), moyo(水痘, 므리)	역질 관련 어휘	

〈표 9〉의 내용 중 瘡膿類 1은 '종기'에 대한 어휘로서, 1칙의 끝에 있는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종기가 가벼운 단계로부터, 곪았다가 터지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이 점은 이후의 瘡膿類 2칙에서도 고름, 역질이 발생한 뒤에 터지고, 다시 아무는 과정으로 어휘를 구분하여 배치한 점과 동일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청문감류〉의 질병 어휘들은 부류명에서 6개의 類로 세분하여 제시되는 점이 여타 유해류에서 疾厄類, 疾病類 등으로 질병 어휘를 구분하 점과 차이가 있다. 또한 여러 유해류에는 그 안에 치료 및 의약에 대한 어휘가 '질병' 어휘의 내부에, 또는 외부에 구분되어 치료 및 의약에 대한 어휘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부류의 내부에서는 〈청문감류〉에서는 두 가지의 큰 틀 안에서 질병 관련 어휘들을 구분 및 배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체 어휘를 포괄하는 어휘에서 시작하여 각 질병의 종류를 부류화하여 보여준 뒤에 관련된 어휘를 나열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각 질병을 신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상—하, 앞—뒤, 전신'의 순서로 구분하여 배열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특정 질병, 증상이 발생하여 아무는 것까지의 단계를 기준으로 어휘를 배열한 것이다.

3.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항목의 특징

1) 질병의 표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표제어

〈청문감류〉 중 『증정』에서는 만주어 표제어 외에 한어 대역어가 부가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근대국어 대역어는 『한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이 세 정보를 토대로 만주어의 질병 관련 어휘의 표제어에 어떠한 정보가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어 대역어 및

근대국어 대역어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표제어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찾을 것이다.

'질병' 관련 어휘 항목에 드러나는 정보는 일차적으로 해당 증상이나 질병의 부위를 명시하는 것, 질병의 시각적 특성과 같은 감각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청문감류〉의 경우 그 외에 처방이나 비유적 표현에서도 특징적인 어휘가 있어 그러한 어휘들 안에서 확인되는 어휘 항목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이 부류의 표제어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특성으로는 질병 및 증상의 부위, 감각적 특징, 진행 단계가 확인된다.

(1) 질병 및 증상의 부위가 직접 드러나는 표제어

『증정』에 쓰인 질병 어휘에 반영된 질병의 정보 중 첫 번째는 표제어에 각 질병의 부위가 명시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2) 가. uju nimembi, 頭疼, **uju luksime fintara be**, uju nimembi sembi. 〈증정16:22a〉
(머리가 아프다 : 머리가 쑤시듯이 아픈 것을 머리 아프다 한다.)
나. yasa sohiha, 眼迷了, **yasa de icihi dosifi ijurabure be** yasa sohiha sembi.〈증정 16:22b〉
(눈이 흐리다 :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문지르게 되는 것을 눈 흐리게 되었다 한다.)
다. cejen telebumbi, 胸膈脹疼, **tunggen i dorgi jalume nimere be**, cejen telebumbi sembi.〈증정 16:23a〉
(가슴이 메다 : 가슴 속이 가득차 아픈 것을 가슴이 메다 한다.)
라. šan sulhumbi, 生耳疳, **šan i dorgi nimeme niyakinara be**, šan sulhumbi sembi.〈증정 16:31b〉
(귀가 흐르다-귀젖이 나다 : 귀의 속을 앓아서 고름이 나는 것을 귀 흐르다(귀젖이 나다) 한다.)
마. hūyan dekdehe, 寒筋, **niyalma šahūrafi halba seire i siden i sube manggalame deribuhe be**, hūyan dekdehe sembi.〈증정 16:19b〉

(승모근이 일어났다 : 사람이 추워서 견갑골과 등뼈 사이의 근육이 굳고 부어오른 것을 승모근이 일어났다(어깨 뭉쳤다) 한다.)

(2)는 질병, 증상에 대한 표제어에 해당 환부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예에서 보듯이, 『증정』의 질병 어휘에 대응되는 한어 대역어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으나 〈청문감류〉에서 환부가 표제어에 명시되는 경우에는 "환부+증상"의 구조를 가지는 구 구성으로 나타난다.

(2) 질병 어휘의 감각 정보가 명시되는 표제어

〈청문감류〉의 질병 어휘에는 질병 어휘의 감각 정보가 표제어에 드러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때 확인되는 감각 정보로는 시각, 후각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다시 직접 드러나는 경우와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구분하여볼 수 있다. 먼저 감각 정보가 직접 표제어에 노출되는 어휘를 살펴보자.

(3) 가. singgeri yoo, 鼠瘡, **meifen i šurdeme cilcinafi niyakinafi angga t ucikengge be**, singgeri yoo sembi.〈증정16:30a〉
(쥐 창질-연주창 : 목을 둘러서 혹이 생기고 고름이 나며, 부리같이 튀어나온 것을 연주창이라 한다.)
나. gocimbumbi, 手足抽搐, **gala bethe tatabure be**, gocimbumbi sembi.〈증정 16:26a〉
(곱다 : 손과 발 당겨지는 것을 곱다 한다.)
다. jancuhūn yoo, 黃水瘡, **dere šurdeme suwayan šula eyeme goiha ba uthai huthenere yoo be**, jancuhūn yoo sembi.〈증정 16:30a〉
(단 창질, 黃水瘡 : 얼굴에 두루 누런 진물 흐르고 오래된 곳은 즉시 딱지 생기는 창질을 황수창이라 한다.)

(3가)의 'singgeri yoo'는 '쥐 창질'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주어 표제어와 한어 대역어, 그리고 근대국어 대역어가 모두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대역어인 '연주창'은 '나력'이라고도 하는데, 다음의 자료를 통해 'singgeri'가 '나력'의 어떠한 특징을 표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13]

(4) 瘰癧, 此證小者爲瘰, 大者爲癧, 當分經絡. … 如鼠形者, 名鼠癧, 又名鼠瘡. …
나력 : 이 증상은 작은 것은 나(瘰)라 하고, 큰 것은 력(癧)이라 하는데, 경락(經絡)을 구분하여야 한다. … 형태가 쥐와 같은 것을 서력(鼠癧)이라 하고, 서창(鼠瘡)이라고도 한다. … 〈의종금감, 외과심법요결〉[14]

(4)는 청나라 시기의 의서인 『의종금감, 외과심법요결』의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드러난 '나력'의 설명 중 뒷부분에 언급된 "형태가 쥐와 같은 것을 서력(鼠癧)이라 하고, 서창(鼠瘡)이라고 한다"는 지적을 통해 'singgeri yoo', '鼠瘡'이 '나력'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나)의 경우에는 표제어가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그 어간의 기본 의미를 통해 'gocimbumbi'가 나타내는 증상이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

(5) 가. gocimbi, 向前拉, **beyei baru tatame gajire be**, gocimbi sembi.(武功1, 撩跤1)〈증정 8:46a〉
(당기다 : 몸쪽으로 당겨오는 것을 당기다 한다.)
나. gocimbi, 緊圍, **aba i seri babe fisin obume amasi tatame gajire be**, gocimbi sembi.(武功2, 畋獵2)〈증정 9:05b〉
(포위진을 좁히다: 사냥에서 드문 곳을 빽빽하게 하여 이후에 당겨서 오는 것을 gocimbi(포위진을 좁히다) 한다.)
다. gocimbi, 行邊, **jurgan jujufi ufire be**, gocimbi sembi.(衣飾, 剪縫1)〈증정 24:45b〉
(꿰매다 : 부분을 표시하여 꿰매는 것을 꿰매다 한다.)

(5)에서 'gocimbi'는 '당기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이 좁아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들로 확인된다. 이와 유사하게 (3나) 'gocimbumbi' 역시 손, 발의 한쪽이 당겨져 모양이 곱는 것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다)의 'jancuhūn yoo'는 '단 창질'로 직역할 수 있다.

---

13) 의서의 원문과 번역은 모두 "한의학 고전 DB"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https://mediclassics.kr/)
14) 瘰癧, 『의종금감』, 卷64 編輯外科心法要訣 〉 項部 〉 瘰癧, 한의학 고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100/volume/4#content_42, 2021.06.29.검색.

'jancuhūn yoo'의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증상은 '얼굴에 두루 누른 진물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도 'jancuhūn(단맛, 달다)'이 '황수창'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어인 'jancuhūn'의 의미를 기반으로 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6) 가. jancuhūn, 甜, hibsu i jergi jaka i amtan be, jancuhūn sembi.(食物2, 滋味)〈증정 28:18b〉
(달다 : 꿀의 종류 따위의 단 것을 달다 한다.)
나. jancuhūn silenggi, 甘露, orho moo de wasika genggiyen bolgo amtangga ningge be, jancuhūn silenggi sembi.(天, 天文6)〈증정 01:17a〉
(단 이슬 : 초목에 떨어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단맛 나는 것을 甘露라 한다.)
다. jancuhūn mursa, 葫蘿蔔, boco fulgiyan, amtan jancuhūn. dube ergi šolonggo golmikan. eshun jeci ombi. gidafi fuifufi jeci inu ombi.(食物1, 菜穀1)〈증정 27:14a〉
(단 무 : 색이 붉고, 맛이 달다. 끝 쪽 뾰족하고 길다.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 잘라서 익혀 먹을 수도 있다.)
라. jancuhūn jofohori, 橘子, julergi ba i tubihe i gebu. sukū haksan. amtan jancuhūn bime jušuhuken. ududu fiyentehe kamcime banjihabi.(雜果, 果品1)〈증정 28:36b〉
(단 감(귤) : 남쪽의 과일의 이름이다. 껍데기 거칠다. 맛 달며 시큼하다.)
마. jancuhūn usiha, 栗子, moo de banjire tubihe i gebu. notho neke liyen bime fulahūkan. faha suwayan. notho be hūwakiyafi jembi.(雜果, 果品2)〈증정 28:40a〉
(단 별(밤) : 나무에 나는 열매의 이름이다. 껍질 얇고 은홍색이다. 알맹이 노랗다. 껍질을 벗겨 먹는다.)

(6)에서 보듯 'jancuhūn'이 단맛을 지니는 과일, 식물을 지시한다는 점이 각 어휘의 뜻풀이를 통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jancuhvn yoo' 또한 유사하게 '황수창'의 미각적인 특성을 반영할 것일 수 있다[15]. 이에 더하여. (6

15)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jancuhūn yoo'와 관련하여 구내염이나 고름, 또는 특정 병에 걸린 사람

마)의 ‘jancuhūn’이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의 어휘들 중 (6다)-(6마)는 모두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표제어로, 그 뜻풀이를 참고하였을 때 맛이 달다는 점 외에, 그 대상어가 모두 붉거나 누른 색을 지닌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 ‘jancuhūn yoo’ 역시 누른 색을 띠는 액이 있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감각 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정보로서 후각적 특징을 포함하는 ‘wahūn nišargan’이 있다.

(7) wahūn nišargan, 乳蛾, bilha i dolo banjiha nišargan be, wahūn nišargan sembi.〈증정 16:30b〉
(악취 부스럼(유아) : 목구멍의 안에 나는 부스럼을 악취 부스럼(유아)라 한다.)

(7)의 ‘wahūn nišargan’은 ‘악취 부스럼’으로 직역된다. 그러나 이 표제어의 뜻풀이를 통해서는 ‘wahūn nišargan’이 발생하는 위치가 목구멍의 안이라는 것, 그리고 부스럼으로서 무엇인가 돋아나는 형상을 가진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어 대역어로서 ‘유아(乳蛾)’는 『한국 전통지식포탈』을 비롯한 한의학 관련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8) 가. 후핵(喉核; 구개편도)이 빨갛게 붓고 아픈 병증. [장씨의통(張氏醫通)] 제8권에서 "유아(乳鵝)와 전후풍(纏喉風)은 다른데, 목구멍 양쪽 옆이 붓는 것은 쌍아(雙鵝)이고, 한쪽 옆만 붓는 것은 단아(單鵝)이다.(乳鵝纏喉二種風不同, 腫于喉兩傍者雙鵝, 腫于一邊者, 爲單鵝)"라고 하였다.[한국전통지식 포탈:병증][16]

나. 咽喉之病, 有單乳蛾・雙乳蛾・單喉閉・雙喉閉・纏喉風・急喉痺・懸雍垂・

의 상처에서 단맛이 나는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 주셨다. 이와 관련하여 고름의 특성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고름의 특성 중 미각적 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중심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표제어 및 뜻풀이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심사자 선생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16) 한국한의학연구원. “유아(乳蛾).” 특허청, December 6, 2007. doi:10.20929/KTKP.DIS.0000113924., 『한국 전통지식포탈』, https://www.koreantk.com/ktkp2014/disease/disease-view.view?disCd=D0007780, 2021.06.29.검색.

梅核氣・尸咽・穀賊・骨鯁・咽痛・咽瘡.
인후병에는 단유아・쌍유아・단후폐・쌍후폐・전후풍・급후비・현옹수・매핵기・시인・곡적・골경・인통・인창이 있다, …
皆因熱氣上行, 搏於喉之兩傍, 近外腫作, 以其形似乳蛾. 一爲單, 二爲雙.《醫鑑》
단유아와 쌍유아는 열기가 올라와 숨구멍의 양 옆을 공격하여 숨구멍 주위가 부어서 그 모양이 나방 애벌레와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한쪽만 부은 것을 단유아라 하고, 양쪽 다 부은 것을 쌍유아라고 한다.《의감》〈동의보감 외형편〉[17]

그런데, 이와 같은 풀이만으로는 만주어 표제어의 'wahūn(악취나다)'을 이해하기 어렵다.『증정』에서의 풀이인 목구멍 안에 나는 부스럼이라는 점을 참조하면, (8)의 풀이에서처럼 후두부가 단순히 부은 것뿐 아니라, 해당 부위에 무언가 돋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편도 결석, 매핵기, 담결과 같은 증상을 참조할 수 있다.

(9) 가. 담결 : 담증(痰證)의 하나. 매핵기(梅核氣)라고도 함. 화사(火邪)가 진액(津液)을 졸여 조담(燥痰)이 오래되면 기가 허해지고 진(津)이 말라 담액(痰液)이 끈적하게 뭉침으로써 발생한다. 목구멍에 맺히는 경우가 많다[18].
나. 매핵기 : 목구멍에 매실의 씨와 같은 것이 걸린 것처럼 삼켜도 내려가지 않고 뱉어도 나오지 않는 병증. [적수현주(赤水玄珠)] 제3권에서는 "매핵기(梅核氣)는 목구멍이 칼칼하여 메이는 듯하고, 또 담(痰)이 목구멍에 덩어리져 맺혀 내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梅核氣者, 喉中介介如梗狀. 又曰痰結塊在喉間, 吐之不出, 咽之不下是也.)"라고 하였다[19].
다. 편도 결석 : 편도 혹은 편도선에 있는 작은 구멍들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생기는 쌀알 크기의 작고 노란 알갱이를 말한다. 이름에

17) 咽喉病名,『동의보감』外形篇卷之二 〉 咽喉 〉 咽喉病名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books/8/volume/6#content_1079. 2021.06.29. 검색.
18) 한국한의학연구원. "담결(痰結)."『한국 전통지식포탈』, https://www.koreantk.com/ktkp2014/disease/disease-view.view?disCd=D0001916, 2021.06.29. 검색.
19) 한국한의학연구원. "매핵기(梅核氣)."『한국 전통지식포탈』, https://www.koreantk.com/ktkp2014/disease/disease-view.view?disCd=D0002593, 2021.06.29. 검색.

> 결석이라고 붙어 있지만 대부분 돌처럼 딱딱하지는 않다. 치아와 혀의 상태가 깨끗한데도 입 냄새가 나며, 양치질하면서 구역질을 심하게 할 때 쌀알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편도결석 [tonsill olith]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20]

(9가)의 담결과 (9나)의 매핵기는 무언가 돋아난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wahūn nišargan'의 뜻풀이와 통하는 내용이 있으나, 악취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9다)의 '편도 결석'의 설명에서는 편도선에 무언가 알갱이처럼 발생하는데, 그 알갱이들이 입냄새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을 통해 'wahūn nišargan'이 '유아(乳蛾)', 즉 후두부의 편도선 부분에 생기는 '편도결석'을 가리키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질병, 증상의 특징이 표면적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외에 표제어에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만주어와 한어 대역, 그리고 근대국어 대역어 사이에 비유 대상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0) 가. singgeri huhun, 米口袋, beye de banjiha huhun tumiha ci ajige bime. dukduhun ningge be, singgeri huhun sembi.〈증정 11:04 b〉
(쥐젖 : 몸에 생긴, 젖꼭지보다 작게 부어오른 것을 쥐젖이라 한다.)

나. nimaha yasa, 雞眼, bethei simhun de tucike muheleyen den ajig e fiyahan be, nimaha yasa sembi.〈증정 16:32a〉
(티눈, 계안 : 발가락에 난 둥그렇고 높으며 작게 굳은 것을 티눈이라 한다.)

다. angga tucike, 出頭, yoo niyasufi ini cisui hūwajafi niyaki tucire be, angga tucike sembi.〈증정 16:32b〉
(창구가 나왔다 : 창질 곪아서 저절로 찢어져 진물 나온 것을 angga tucike라 한다.)

---

20) 편도결석 [tonsillolith]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7022&cid=51007&categoryId=51007(2021.06.29. 검색).

(10)에서 제시한 어휘들도 모두 대상 질병의 시각적 특성이 표제어에 드러난다. 그런데 이 만주어 어휘들이 비유하는 어휘들은 한어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휘들과 구분될 수 있다. (10가)의 'singgeri huhun'은 『한청』에서의 대역어인 '쥐젖'과 동일한 의미와 구조를 가지는 것에 비해, 『증정』에서의 대역어는 '미구대(米口袋)'로 되어 비유 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의학 관련 서적을 참고했을 때 '쥐젖'에 대응되는 한자어 표현은 주로 '서유(鼠乳)'로 나타나는 점에서 만주어 표제어인 'singgeri huhun'과 '쥐젖'은 기존의 의학 용어와도 차이가 있다. (10나)의 'nimaha yasa'는 그 뜻풀이를 참고하였을 때, 현대국어의 티눈에 대응되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한자어 대역어는 '계안(鷄眼)'으로 된 점에서 비유 대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계안'과 티눈의 정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肉刺 : 此證生在脚指, 形如鷄眼, 故俗名鷄眼. 根陷肉裏, 頂起硬凸, 疼痛步履不得.
이 증상은 발가락에 생기는데, 형태가 닭의 눈알과 같아서 민간에서는 계안(鷄眼)이라고 한다. 뿌리가 함몰되어 살 속으로 파고들고 꼭대기는 단단하게 凸모양으로 솟으며 욱신거리고 아파서 걷지 못한다. 〈의종금감, 외과심법요결〉[21]

(11)은 청나라 강희제 시기의 의학서인 『의종금감』의 기사이다. 여기에서는 표제어 '육자(肉刺)'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모양이 닭의 눈알과 같다는 점에서 '계안(鷄眼)'이라는 표현도 통용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만주어 표제어에서 'nimaha yasa'의 경우에도 『광제비급』[22]의 기사를 통해 그 모양을 비유한 표현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1) 肉刺, 『의종금감』編輯外科心法要訣 〉 足部 〉 肉刺, 『한의학고전DB』
22) 1790년(정조 14)에 이경화가 간행한 의서로 4권 4책. 목판본. 정조 때 함경도관찰사인 이병모(李秉模)가 이 지방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구료(救療)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경화에게 이 책을 편술하게 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광제비급 [廣濟祕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4296&cid=46638&categoryId=46638, 2021.06.29. 검색

(12) 魚目瘡 : 遍身如魚目, 無膿, (…)《得效》
어목창은 온 몸에 물고기 눈과 같이 헌데가 생기면서 고름은 없다. (…)《득효》〈광제비급〉[23]

'nimaha yasa'는 한자어로 변환하였을 때 '魚目, 魚眼'의 구조를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병명으로 '魚目瘡,' '魚眼瘡'[24]을 확인할 수 있다. (12)의 뜻풀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魚目瘡'의 증상은 전신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만주어 표제어인 'nimaha yasa'는 발에 생기는 질병만을 한정하여 표현하되, 물고기 눈에 비유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0다)는 상처 부위가 벌어져서 구멍이 생긴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angga tucike'이다. 이는 "입 나왔다"로 직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한어로서 '出頭'가 쓰인 점에서 '머리'와 '입'으로 그 비유 대상이 달리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한청』의 대역어인 '부리지다'의 경우에는 그 비유 대상이 신체의 입 부분이라는 점에서 만주어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처 부위가 벌어진 모양을 비유한 점에서도 'angga tucike(부리지다)'가 그 모양에 더욱 가까워 보인다.

(3) 질병의 특징적인 진행 단계를 반영하는 표제어

〈청문감류〉의 만주어 질병 어휘에서는 한어나 근대국어의 표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병의 진행상 특성이 표제어에 드러나는 어휘가 몇몇 있다.

〈표 10〉 질병의 단계를 반영하는 표제어

『증정』 표제어	『증정』 한어	『한청』 표제어	『한청』 근대 국어 대역어
hūdun hafuka	疔	hūdun hafuka	정종
subsi	久病不見好	subsi	병이 오래다
hūsibuhabi	總不離病	hūsibuhabi	병에 싸이다

23) 魚目瘡, 廣濟祕笈 卷之一 〉 癰疽 〉 魚目瘡,『한의학 고전, DB』.
24) 鄕藥集成方 卷第四十一 〉 癰疽瘡瘍門 2 〉 附骨疽,『聖惠方』治附骨疽, 及魚眼瘡.『성혜방』부골저 및 어안창(온몸에 종기가 생겨 고기의 눈과 같으며 고름이 없다. 魚目瘡이라고도 한다.)을 치료한다.

(13) hūdun hafuka, 疔, ehe horon bisire ehe buturi banjiha be, hūdu n hafuka sembi. ere yoo de fulgiyan siren bi.〈증정 16:30b〉
(경죵(급한 창질) : 나쁜 독 있는 나쁜 여드름이 난 것을 정창이라 한다. 이 창질에 붉은 심지가 있다.)

(13)의 'hūdun hafuka'는 '疔瘡'에 대응되는데, 만주어 표제어는 '급한 창질'로 직역된다. 그런데 'hūdun hafuka'의 뜻풀이에서는 '정창'의 외관상 특징만 보여주고 있어 'hūdun'이 나타내는 바를 분명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보감』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14) 疔疽(정저), (…) 疔瘡初發, 突起如釘盖, 故謂之疔. 近世多見, 因食自死牛馬禽獸之肉而發, 或感襲天地暴沴之氣而發, 或恣食辛辣厚味積毒而發. 其形有十三種, 治法皆同. 初起僅一小瘡, 殺人於一二日之內, 比之癰疽尤毒, 又有紅絲疔, 魚膾疔, 其毒尤甚. 《入門》〈동의보감(東醫寶鑑), 잡병편 08〉
(…) 정창(疔瘡)은 초기에 못대가리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疔)이라고 한다. 요즈음 많이 보이는데, 저절로 죽은 소나 말이나 금수의 고기를 먹어서 생기거나, 갑자기 나쁜 기를 받거나 맵고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독이 쌓여 생긴다. 그 형태는 13종이 있지만 치료법은 모두 같다. 초기에 작은 창이 겨우 하나 생기지만 1~2일 내에 사람을 죽이니 옹저보다 더 독하다. 홍사정(紅絲疔)·어제정(魚膾疔)의 독이 더욱 심하다. 《입문》〈東醫寶鑑 雜病篇 卷之八〉 25)

(14)를 통해 한어 대역어인 '疔瘡'이 그 외형적 특징 '못과 같이 생긴 것'을 나타내는 점을 알 수 있고26), 말미의 언급, 1-2일 내에 급격히 진행되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hūdun'의 기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어에서 정창이 그 외형적 특징을 드러낸 표현임에 비해, 만주어 표현인 'hūdun hafuka'는 정창의 발병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인 '매우 급격히 진행됨'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 'subsi', 'hūsibuhabi'는 모두

25) 『동의보감』 雜病篇 卷之八 〉 癰疽 下 〉 疔疽, 『한의학 고전 db』.
26) 『동의보감』에서 疔瘡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설명에 疔과 丁이 함께 쓰이는 점이 확인된다.

그 증상이 만성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15) 가. subsi, 久病不見好, **goidame nimeme lak seme dulenderakū be**, subsi sembi.〈증정 16:27b〉
(만성 : 오랫동안 아파서 적당하게 지나가지 않는 것을 만성이라 한다.)
가′. subsi, -, **gejenggi sirke be**, subsi sembi〈증정 18:15a〉
(골동 : 자질구레하게 오래된 것을 subsi라 한다.)
나. hūsibuhabi, 總不離病, **nimeme goidaha be**, nimeku de hūsibuha sembi.〈증정 16:17a〉
(둘러싸였다 : 병이 오랜 것을, 병에 둘러싸였다 한다.)
나′. hūsimbi, 裹起, **yaya jaka be šurdeme emu ici uhure be**, hūsimbi sembi.〈증정24:54b〉
(싸다 : 무릇 물건을 둘러서 한 쪽으로 만 것을 싸다 한다.)

(15)의 표현들은 모두 병이 잘 낫지 않는 속성을 보여주는 어휘들이다. 여기에서 'subsi'가 (15가′)의 '골동'의 의미로부터 병, 증상이 오래된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나)의 'hūsibuhabi'는 어근으로 'hūsimbi'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싸다' '둘러싸다'는 것이다. 또한, 'hūsibuhabi'의 뜻풀이에서 병이 오랜 것을 '병에 둘러싸였다'로 표현하던 것으로부터 'hūsibihabi'가 유래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점은『한청』의 대역어에서도 확인된다.

(2)-(15)의 용례를 통해 살펴본 질병 및 증상에 대한 표현에 드러나는 특징들은 모두 별다른 의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그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정보는 당시에도, 현재에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엄밀하고 개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다수의 의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나,『증정』에서 만주어 표제어에 대응되는 한어 대역어 역시 많은 어휘의 경우 해당 질병만을 표기하기 위한 어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3장 1절에서 살펴본 여러 어휘들이 일상어를 기반으로, 각 질병이 보이는 감각 정보와 같은 표면적 정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만주어에서의 질병 관련 어휘가 가지는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이러한 특성과는 달리 질병 및 증상의 일차적 특징 외에 처방이 표제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16) halda yoo, 搭背, halbai juwe siden fisa de banjiha yoo be halda yoo sembi. **ajin nimaha i delihun i gebu halda. ere nimeku be dasara de ambula tusa.**〈권16:30b〉
황어 지라 창질(등창/욕창) : 겹갑골의 두쪽 사이 등에 난 창질을 등창이라 한다. 전어의 지라의 이름이 halda이다. 이 병을 다스리는데 크게 이롭다.

'halda yoo'는 '황어 지라 창질'로 직역된다. 뜻풀이에 의하면 등에 나는 창질로, 'halda'를 이용해 욕창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욕창의 치료법을 표제어에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halda'의 의미와 효능은 『증정』을 비롯한 여러 의서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ajin, 鰉魚**, angga golmin šulihun. esihe akū. dara i jurgan. dalba i bade ilan jurgan i latume giranggi banjihabi. sukū jirami n. beye de haga giranggi akū buge canggi. amba ningge emu juda funceme bi. (鱗甲, 河魚1)〈증정 32:25a〉
(황어 : 입이 길고 뾰족하다. 비늘이 없다. 허리의 가장자리가 세 가닥으로 달라붙은 꼬리가 나 있다. 가죽이 두텁다. 몸에 뼈가 없고 연골만 있다. 큰 것은 1 丈 넘는 것도 있다.)

먼저, (16)에 의하면 'halda'는 'ajin'의 지라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jin'은 『증정』에서 '鰉魚'에 대응되는데, '鰉魚'가 『식물본초』[2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27) 보물 제1227호. 활자본. 상·하 2책. 『植物本草』는 음식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서, 1526년(중종 21) 명(明)나라의 요문청(姚文淸)이 서문을 붙여 간행한 것을 1521-67년에 간행한 것이다. 전체 내용을 물[水]·곡식·채소·과실·가금(家禽)·짐승·물고기·맛[味]의 8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87개 조목으로 나누어 상·하 2책에 수록하였는데, 각각의 조목에서 해당식물의 맛·본성·이익·해독 등을 설명하고 끝에는 각종 식물에 대한 총론을 적고 있다. [植物本草] (두산백과) 참조

(18) 食物本草卷下 〉 魚類, 鱣魚(전어)
鱣魚, 無毒. 肛, 主惡瘡・癬疥.《詩》言, '鱣鮪發發', 卽今之鱘魚也
전어(鱣魚)는 독이 없다. 전어의 간은 주로 악창과 선개에 사용한다.《시경・석인(碩人)》에서 "전어와 상어가 팔딱거리며"라 하였으니, 지금의 황어(鱘魚)이다. 〈식물본초 권하〉[28]

(18)은 『식물본초』의 표제어로서, 제시한 어휘는 '전어'인데 이 '전어'의 간이 '악창'과 '선개'에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전어와 상어가 당시에 '鱘魚'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즉, (18)을 통해 '鱘魚'가 전어와 상어를 모두 가리키며, 그 효능 역시 'halda yoo'의 뜻풀이에서 제시한 욕창 치료와 관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문감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관련 표제어로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각 질병, 증상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반영한 표제어이다.

이 경우에는 뜻풀이를 통해 해당 표제어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halda yoo'가 가지는 일차적인 의미인 '황어 창질'만으로는 해당 어휘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뜻풀이에서 'halda'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을 통해 그 어휘와 질병이 어떠한 관련성에서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있다.

'halda yoo'와 유사하게 그 표제어의 내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로 다음과 같은 어휘들이 있다.

〈표 11〉 천포창, 양매창을 의미하는 어휘들

『증정』 표제어	『증정』 한어	『한청』 표제어	『한청』 근대국어 대역어
šajin yoo	楊梅瘡	楊梅瘡	당옴
nikan yoo.	天疱瘡	天疱瘡	천포창

28) 鱣魚, 『食物本草』卷下 〉 魚類 〉 鱣魚, 『한의학고전DB』.

fiha yoo.	天疱瘡	-	-

'šajin yoo', 'nikan yoo', 'fiha yoo'의 관계를 살펴보면, 『증정』에서 'nikan yoo', 'fiha yoo' 두 표제어의 한어 대역으로는 '天疱瘡'이, 'šajin yoo'의 한어 대역으로는 '楊梅瘡'이 제시되어 있다.

(19) 가. šajin yoo, -, niyalmai beye de labsime banjihangge be, šajin yoo sembi. **umesi fusihūn. nikan yoo seme inu gisurembi. geli fiha yoo sembi**. ere yoo niyalma de latumbi.〈청문 11:01b〉
(금기 창질 : 사람의 몸에 온통 더럽게 나는 것을 매독이라 한다. 매우 가벼운 것은 nikan yoo라고도 말한다. 또는 천포창이라 한다. 이 창질은 사람에게 옮는다.)

가'. šajin yoo, 楊梅瘡, niyalmai beye de labsime banjihangge be šajin yoo sembi. umesi fusihūn. ere yoo niyalma de latumbi.〈증정 16:30b〉

나. nikan yoo, 天疱瘡, **šajin yoo be, inu nikan yoo seme gisurembi.** 〈증정16:30b〉
(중국 창질, 천포창 : 매독을 또한 중국 창질이라 한다.)

다. fiha yoo, 天疱瘡, **šajin yoo be geli fiha yoo sembi.**〈증정 16:30b〉
(종기 창질 : 매독을 또한 천포창이라 한다.)

(19가)의 『청문』에 의하면 'šajin yoo'보다 가벼운 것이 'nikan yoo'이고, 이는 '양매창, 천포창'으로 대역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가´)에서는 『증정』의 만주어 뜻풀이를 통해서는 'nikan yoo'와 'šajin yoo', 'fiya hoo'가 모두 같은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며, 한어 대역어인 '楊梅瘡'과 '天疱瘡' 또한 하나의 질병을 달리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청』의 대역어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대역어의 제시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한청』에서는 '천포창'을 가리키는 어휘로 'šajin yoo'와 'nikan yoo'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 중 'šajin yoo'에 '당옴'이, 'nikan yoo'에 '천포창'이 대응되어 만주어 직역과는 차이를 보인다[29].

29) 『한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유해류인 『역어유해』, 『방언유석』, 『동문유해』, 『몽어유해

이 두 어휘에 대응하는 한어 대역어도 '양매창', '천포창'으로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의서를 통해 '당옴', '양매창'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20) 가. 天疱瘡 : 당옴이라 (천포창이다)〈언해구급방 권하〉
나. 楊梅瘡一名天泡瘡, 俗云唐瘡.(양매창 일명 천포창(天泡瘡)이라고도 한다. 민간에서는 당창(唐瘡)이라고 부른다.) 〈급유방 권지십이〉
다. 入門一名楊梅瘡. 與癩大同, 多由肝脾腎風濕熱之毒. 因男女房室傳染, 形如楊梅, 煩紅濕爛痒痛屬心, 生乳脅.
《입문》 양매창이라고도 하는데 나풍과 대체로 같다. 대부분 간・비・신에 풍・습・열의 독기가 있어서 생기는데, 남녀의 성교를 통해 전염된다. 형태가 소귀나무의 열매 같고, 화끈거리면서 붉고 습하며, 짓무르고 가려우며 아픈 것은 심(心)에 속한다. 젖가슴과 옆구리에 생긴다. 〈의종손익 권지십〉30)
라. 양매(楊梅): (1)소귀나무. 천포창(天疱瘡) 즉, 양매창(楊梅瘡)에서 헌데의 모양이 양매와 같다고 하였다. (2)양매창(楊梅瘡)을 줄여서 부르는 말[한국 전통지식포탈 〉 양매]

(20)의 자료를 통해 '천포창'과 '양매창', 그리고 '당옴'이 모두 하나의 질병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문』에서 확인되는 점과도 동일하다. 여기에 더하여 (20다, 라)에서는 '양매창'이라는 표현이 '소귀나무 열매, 양매'를 비유적으로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나)에서는 민간에서의 표현으로 '당창'을 언급하는데, 이는 『한청』에서의 '당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옴', '당창'의 표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21) 臣歷考古今方書, 無唐毒疫之病名, 又無治唐毒疫之方法, 盖罕世之酷疾也. (…) 其爲病酷悍暴烈, 實異於尋常瘟疫. 閭閻苦之, 號爲唐毒疫, 盖病之惡者, 謂之唐, 如唐瘧・唐瘡之類, 是也.
(내가 고금의 의서를 두루 살펴보았으나 당독역(唐毒疫)이라는 병명이 없고 또 당독역을 치료하는 방법도 없으니, 아마도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에서는 양매창에 모두 '당옴'이 대응되어 있다.
30) 天疱瘡, 『醫宗損益』 卷之十. 酉集 〉 諸瘡〉 天疱瘡, 『한의학 고전DB』.

> 모진 질병이기 때문인 듯하다. (…)이 병의 특성이 혹독하고 맹렬하여 실로 일반적인 온역과는 달라서 집집마다 고통스러워하며 "당독역(唐毒疫)"이라 부르니, 아마도 병 가운데 지독한 것에 '당(唐)'을 붙이는데 당학(唐瘧)이나 당창(唐瘡)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벽역신방〉[31]

(21)을 통하여 '당(唐)'을 붙인 어휘들이 일반적인 증상, 질병과 달리 매우 지독한 것에 '당'을 붙인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당창'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된 어휘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당'을 붙인 어휘들이 어느 정도 금기 표현으로 인식되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만주어 표제어에서 'nikan yoo'가 아닌 'šajin yoo'에 대응되는 점을 통해서도 그 관련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문감류〉에서 질병과 관련된 항목의 표제어는 각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특별한 의학적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제어의 의미만으로 질병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몇몇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전적 풀이를 통해 그 지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질병의 특징을 일상어[32]로 설명하는 뜻풀이

〈청문감류〉가 자국어로 된 뜻풀이를 겸한 자국어 사전이라는 점에서 '표제

---

31) 唐毒疫, 한의학 고전DB, 辟疫神方 〉 唐毒疫, https://mediclassics.kr/books/168/volume/1#content_7, 2021.08.12. 검색.

32) 본고에서의 일상어라는 표현은 김양진, 「만주어사전『어제청문감』(1708)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 『한국 사전학』 24, 한국 사전학회, 2014, 52면에서의 언급인 "당시 일반인들의 언어 지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원용한 것으로, 뜻풀이의 내용이 깊이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 것이다.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일상어로 된 뜻풀이라는 설명에 대해 유사한 부류의 어휘가 만주어 전문어로 풀이된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지적해 주셨으나, 만주어에 대해 만주어로 작성된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청문감』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들 뿐이므로, 이러한 확인은 가능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청문감류〉에서의 질병 관련 어휘에 대한 뜻풀이에 대해 동양 의학서와 대비에서 일상적인 표현을 이용한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적을 통해 표현의 엄밀성을 다시 한 번 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사자 선생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어' 외에 뜻풀이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표제어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검토가 필요하다. 〈청문감류〉에서 질병 관련 어휘의 뜻풀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몇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질병의 원인을 기반으로 증상을 설명하는 경우, 해당 질병 명칭의 기원을 알려주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1) 질병 및 증상의 원인을 보여주는 뜻풀이

(22) 가. šurgecembi, 打顫, **eici šahūrafi eici nimeme yadalinggū ofi bey e dargime aššara be**, šurgecembi sembi.〈증정16:25a〉
(떨다 : 혹 춥거나 혹은 아파서 약하게 되어 몸 진동하여 움직이는 것을 떨다 한다.)
나. durgecembi, 身子抖顫, **nimeme beye sidara ba baharakū facihiy ašame beye aššame yali gūwaššara be**, durgecembi sembi.〈증정16:25b〉
(떨다 : 아파서 몸 둘 곳 얻지 못하여 조급하게 몸이 움직이고 살 떨리는 것을 떨다 한다.)

(22가), (22나)의 표제어는 모두 '떨다'로 직역될 수 있는데, 그 뜻풀이를 통해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2가)에서는 몸을 떠는 증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22나)의 경우에는 아픈 것이 원인이 되어 몸을 떠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표제어의 기원을 알려주는 뜻풀이

몇몇 어휘의 경우에는 그 뜻풀이에서 각 표제어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23) 가. halda yoo, 搭背, halbai juwe siden fisa de banjiha yoo be halda yoo sembi. **ajin nimaha i delihun i gebu halda. ere nimeku be dasara de ambula tusa.**〈권16:30b〉

(황어 지라 창질 : 겹갑골의 두 쪽 사이 등에 난 창질을 등창이라 한다. 황어의 비장의 이름이 halda이다. 이 병을 다스리는데 크게 이롭다.)

나. šuhuri sihambi, 落痂, mama eršehe jusei huthe tuhere be, šuhuri sihambi sembi. **mere i šuhuri de duibulehebi.**〈권16:34a〉
(낙가(落痂)하다 : 역질 걸린 아이의 더뎅이 떨어지는 것을 낙가(落痂)하다 한다. 메밀의 껍질에 비교한 것이다.)

(23)의 예 중 (23가)는 이미 3장의 1절에서 살펴본 표제어이다. 여기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욕창, 등창으로 이해되는 질병에 대해 생선의 기관 이름을 붙인 이유를 뜻풀이에서 명시하고 있다. 유사하게 (23나)에서는 좀 더 생활에 밀접한 표현을 포함하는 'šuhuri sihambi'가 '낙가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이유에 대해 'šuhuri'가 본래 '메밀 껍질'을 나타내는데, '더뎅이'에 '메밀 껍질'을 비유한 표제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뜻풀이의 정보는 질병 자체 뿐 아니라 각 질병을 드러내는 방식과 그 기원에 대한 정보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상에 밀접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질병의 증상 및 내용을 분명히 하는 뜻풀이

또 다른 요소로서, 한어 대역어 및 근대국어의 대역어만으로는 구분되기 어려운 질병, 병명이 만주어 뜻풀이를 통해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유사하게 '감기'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어휘들의 뜻풀이에서 각 증상이 달리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감기'를 나타내는 어휘들

『증정』 표제어	『증정』 한어	『한청』 표제어	『한청』 근대국어 대역어
harkasi	熱症	harkasi	傷寒
šahūrakabi	感冒	šahūrakabi	感冒ᄒᆞ다
wanggiyanahabi	傷風	wanggiyanahabi	곳블ᄒᆞ다
edun dekdehe	冒風	edun dekdehe	감긔 겨시다

(24) 가. harkasi, 熱症, **wenjeme haksame beyei gubci caksime uju finta me nei akū nimere be**, harkasi sembi.〈증정16:18a〉
(감기 : 열나며 속 타는 몸의 전부가 아프고, 머리와 뼈가 쑤시며 아프고 땀 없이 아픈 것을 harkasi라 한다.)
나. šahūrakabi, 感冒, **beyefi nimere** be, šahūrakabi sembi.〈증정 16:19a〉
(추워졌다 : 추워서 아픈 것을 추워졌다 한다.)
다. wanggiyanahabi, 傷風, niyalma **šahūrafi oforo sibume genggiye n niyaki eyere be**, wanggiyanahabi sembi.〈증정16:19b〉
(감기 들다 : 사람이 추워서 코 막히고 맑은 물 흐르는 것을 감기 들다(콧물 난다) 한다.)
라. edun dekdehe, 冒風, šahūrafi yacihiyara fucihiyara uju majige nimere be, **wesihun niyalma be oci. edun dekdehe sembi**.〈증정16:25b〉
(감기(바람 날았다) : 추워서 재채기하고 기침하며, 머리가 조금 아픈 것을 높은 사람에게는 감기(바람 날았다) 한다.)

〈표 12〉에서 제시된 『증정』의 한어 대역어 어휘들은 모두 '감기'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어휘만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없는 질병 및 그 증상에 대해, (24나)-(24라)의 뜻풀이에서는 그 원인이 '추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각 어휘에 따라 증상이 콧물이 나는 것, 기침을 동반하는 것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4다)에서는 해당 어휘가 어떠한 사람에게 활용되는가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청문감류〉에서 제시되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뜻풀이는 모두 의학적 지식이 별도로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점은 전문 의학 서적에서 근본적인 요인인 전문용어를 활용하여 택하는 어휘 및 뜻풀이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는 『단곡경험방』의 내용 중 '傷寒'과 관련된 기록이다.

(25) 有戰而汗解者, 太陽也. 有不戰汗解者, 陽明也. 有不戰 不汗而解者, 小陽也. 老人虛弱, 發戰而汗不行, 隨卽昏悶者, 不治.
몸을 떨다가 땀이 나면서 풀리는 것은 태양병이고, 몸을 떨지는 않고 땀이 나면서 풀리는 것은 양명병이다. 몸을 떨지도 않고 땀도 나지 않으면서 풀리는 것은 소양병이다.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이 몸을 떨면서도 땀이 나지 않으며 정신이 곧 혼미해지면 다스릴 수 없다.〈단곡경험방 권지이〉[33]

(25)는 상한(傷寒)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24)에서의 설명과 달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태양병', '양명병'과 같은 별도의 전문어를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의 뜻풀이는 생활에 밀착된, 일상적인 수준에서 뜻풀이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문감류〉의 뜻풀이를 통해 질병 관련 어휘들이 전문어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만, 그 풀이 방식에서는 일상어를 택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련되는 어휘가 의서에서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기반으로 설명되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김양진(2014)[34]에서 언급한 『어제청문감』의 편찬 목적인 "강희제 대에 이르러 표준 만주어를 확립하고 만주어를 언중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35]"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청문』을 기반으로 하는 『증정』, 그리고 『한청』에서 드러나는 질병 관련 어휘의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의학 관련 어휘들은 역사적으로 동양의 각국에서 전파 및 수용되며, 각 나라 및 시기에 따라 그 실정에 맞추

33) 傷寒戰慄, 『단곡경험방』 雜病篇二 〉 寒 〉 傷寒戰慄,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7/volume/2#content_1830, 2021.06.29. 검색.
34) 김양진, 「만주어사전 『어제청문감』(1708)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014, 51면.
35) 같은 글, 51면에서 뜻풀이에서도 해당 단어의 뜻을 당시 일반인들의 언어 지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어 체계화되어 재구성되어 왔다. 동양에서 각 질병이나 증상에 대한 명칭 및 그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공통된 요소를 지니며 전수되어 왔다는 점에서 언어에 따라 질병 관련 어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 및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의 방식은 〈청문감류〉에서 질병 관련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人部에 포함되는 부류 중 질병과 관련된 部와 類에서 어휘들을 체계화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확인하고, 각 어휘항목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는 표제어와 그 뜻풀이를 구분하여 특징을 확인하였다.

〈청문감류〉의 체계적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청문감류〉외에 동시대에 간행된 유해류 자료인 『동문휘집』, 『만한유서』와 조선에서 간행된 『동문유해』 및 『방언유석』의 체계도 함께 비교하였다.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체계에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나머지 유해류 자료들에서 모두 처방 및 치료와 관련된 어휘들이 질병 관련 어휘의 부류의 내부에, 혹은 이어지는 부류로서 제시된 것에 비해 〈청문감류〉에서는 치료, 처방에 대한 어휘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동문휘집』, 『만한유서』에서는 질병 관련 어휘가 질액류(疾厄類)에 포함되며, '의식 없음', '정신이상'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먼저 구분한 것에 비해 〈청문감류〉와 『동문유해』, 『방언유석』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으로 처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어서 부류 안에 포함된 어휘들을 구분 및 배열하는 방식으로 〈청문감류〉에서는 則 내부의 어휘들을 신체 부위에 따라, 그리고 질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배열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문감류〉 이외의 유해류 자료에서도 일부 신체 부위, 신체 기관의 기능, 그리고 질병의 진행 단계 등에 의한 어휘 구분 및 배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포함된 어휘의 양이나 어휘를 체계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청문감류〉와 차이를 보인다.

〈청문감류〉의 질병 관련 어휘 항목이 보이는 특징은 표제어에 드러나는 정보와 〈청문감류〉의 뜻풀이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먼저, 질병 관련 어휘 항목의 특징 중 표제어에 드러나는 정보에 대해서는 『증정』

의 만주어 표제어와 한어 대역어, 그리고 『한청』의 근대국어 대역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및 정보를 비교하였다. 여기에 드러나는 정보로는 각 질병이나 증상의 신체 부위를 명시하거나 시각·후각 등의 감각적 정보를 표제어에 드러내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질병의 특수한 진행 단계나 처방을 명시하는 어휘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만주어에서의 질병 관련 표제어는 전문어임에도 그 어휘에 질병이 지니는 표면적인 감각을 반영하는 표현이 다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문감류〉가 자국어로 뜻풀이를 제공하는 사전류이고, 표제어에 드러나는 정보를 통해서도 일상에 밀접한 뜻풀이가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점은 질병 관련 어휘의 뜻풀이에서 표제어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는 경우와 각 질병 및 증상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도록 하는 뜻풀이 등을 통해 일상어로서 각 질병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청문감류〉에서는 유의적인 어휘들을 연속적으로 제시 및 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유사한 증상에 대해서도 원인이나 양상에서 세밀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방언유석』, 홍문각 영인본, 1985.

김양진, 「만주어사전 『어제청문감』(1708)의 사전학적, 언어학적 의의」, 『한국 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2014, 33-66면.

박훈평, 「조선시대 [황제내경] 의 간행과 강서 활용 연구」, 『서지학연구』 82, 한국서지학회, 2020, 121-140면.

성우철・오민석・김유범, 「淸文鑑類 만주어 사전의 성립과 전파, 그리고 동아시아적 변용」, 『인문학연구』45,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20, 7-51면.

연규동, 「근대국어의 낱말밭—유해류 역학서의 부류 배열 순서를 중심으로」, 『언어학』 28, 한국언어학회, 2001, 101-128면.

최계영, 「『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225면.

홍명복, 『방언유석』, 학지원, 2018.

한의학 고전 DB, https://mediclassics.kr/(2021.8.12. 검색).

한국 전통지식포탈 〉 전통 의료, https://www.koreantk.com/ktkp2014/(2021.6.30. 검색).

만주어 및 만주 문학자료 총서 구축, 토대연구 DB, http://ffr.krm.or.kr/base/td037/browse.html(2021.6.30.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1007&categoryId=51007(2021.6.30.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4621&categoryId=44621(2021.6.30. 검색).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0942&categoryId=40942(2021.6.30.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The vocabulary about "disease" in the Manchu Dictionaries *Qingwenjian*

Lee, Hyo-Yoon* · Choi, Hye-Bin** · Yu-Cail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cabulary about disease in Manchu Dictionaries *Qingwenjian*. Medical vocabulary has historically been propagated and accepted in East Asian countries, and has been systematized and reconstructed according to each country and time. We were interested in how the vocabulary about disease was understood and organized, given that there were some common elements in the East Asia.

In *Qingwenjian*, we tried to check the way of vocabulary about disease were classified and organized, and tried to fine out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each vocabulary item based on the meaning and meaning of the title word.

As for the view of classfying and organizing vocabularies, After presenting a comprehensive word, the rest of the vocabulary was arranged in order of disease, symptoms, and related vocabulary according to the body part, and other systemizations were made during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As for vocabulary items, it was found that the title mainly reveals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are expressed through everyday expressions that can be understood without expertise.

Keywords: *Yuzhi Qingwenjian*, *Yuzhi Zengding Qingwenjian*, *HanQingwenjian*, Vocabulary classification, Vocabulary system, daily words, disease vocabulary.

접수일: 2021.06.30.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05.

* Lecturer, University College, Yonsei Univ.
** Ph.D. Candidate, Dept. of Korea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
*** Ph.D.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yungHee Univ.